

울산대학교 스트리트 퍼니처에 관한 연구 (Street Furniture for U.O.U.)

백운호

산업디자인학과

<국문초록>

1980년대 이후 지방의 새로운 캠퍼스를 중심으로하여 최근 몇몇 대학에서 대학C.I.(Campus Identity)와 더불어 통일된 이미지의 캠퍼스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물의 대부분이 획일적인 일반 기성제품이나 조악한 자체 제작품으로서 기능적인 면에만 치중한 나머지 특성이나 경관 가치와는 무관하게 계획, 시행, 관리되어 온 실정이다.

대학의 스트리트 퍼니처는 설치장소, 사용자 그리고 관리면에 있어 엄격히 일반 스트리트 퍼니처와는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캠퍼스내의 스트리트 퍼니처는 대학의 복잡, 거대한 시설면에서 보아 부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학구성원이 대학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리 시설물이다. 대학의 옥외환경 속에서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패적하고 능률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 본 연구의 최대 목 적이다.

Study of Street Furniture in University of Ulsan

Baek, Woon-Ho

Dept. of Industrial Design

<Abstract>

Since 1980s, a few college began to introduce C.I.(Campus Identity) centered around new local campus; and even though the Campus Street Furniture of unified image has been applied, along with the C.I., most of all haven't been introduced or managed, systematically. Most facilities are general uniform ready-made products or products of

low quality; and, as the products concentrated on only functional aspects, it is true that the products have been planned, installed and manage disregarding characters and scenic value.

Campus Street Furniture should be treated separately from ordinary street furniture regarding places of installation, users and a management. Campus Street Furniture seems to be incidental things compared with big and intricate campus facilities but are convenient facilities which actually affect campus lif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sure people have safe, sound, effective and convenient life in campus.

1. 序 論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하여 금융계, 중소기업 그리고 최근의 관공서에 이르기까지 적용되어 온 C.I.(Corporate Identity)는 1980년대 이후 지방에 새로운 캠퍼스 조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캠퍼스 이미지 통합으로서의 C.I.(Campus Identity)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표시, 안내, 유도 그리고 규제의 기능을 갖는 사인시설물은 이러한 C.I.도입에 의해 이미지에 있어 통일감을 이루었으나 그외의 시설물은 기본적인 기능에만 치중한 나머지 주변 경관의 특성이나 가치와는 무관하게 계획, 시행, 관리되어 왔다. 캠퍼스내의 스트리트 퍼니처¹⁾는 사용자, 설치공간 그리고 관리의 측면에서 엄격히 일반 스트리트 퍼니처와는 차별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일반공원, 유원지 등을 위해 제작된 획일적인 기성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기능면에만 치중한 것을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캠퍼스내의 스트리트 퍼니처는 대학의 복잡, 거대한 시설면에서 보아 부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학구성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리 시설물이다. 대학의 미관을 조화시켜 주고 옥외환경 속에서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거나 기능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장치로서,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감성적 장치로서 대학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것에 기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울산대학교의 대내외적인 위상제고, 질적향상의 표징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구성원의 쾌적한 교내생활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표준, 차별화 된 교내 스트리트 퍼니처를 계획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그 목적과 의의를 두고 있다.

1) 1950년 말 영국에서 옥외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종종하여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부른것에 연유되며 이후 유럽대륙과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스트리트 퍼니처'를 문자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거리의 가구'로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공원, 도로 및 광장등의 공간에 설치된 분수, 벤치, 휴지통, 제설기, 음수대, 전화부스, 각종 안내판, 간이화장실, 방공호등의 장치를 종칭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사이트 퍼니처'(Sight Furniture) 또는 '어반 퍼니처'(Urban furniture)라고 부르기도 하며 보행자를 위한 가구 또는 도구로 인식되기도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첫째, 현 울산대학교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실태조사를 한다.

둘째, 현황조사에 의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의 파악과 그에 따른 디자인 방향을 설정한다.

세째, 디자인작업 결과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2. 本 論

2.1 울산대학교 스트리트 퍼니처 현황

울산대학교는 1970년 3월 16일 국내최초의 공업도시 울산에 5개학과 입학정원 200명의 울산공과대학으로 출발하였다. 개교 16년째인 1985년도 종합대학으로 승격(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되었고 1988년 의과대학, 조형대학, 경영대학의 신설과 함께 지난 20여년간 꾸준한 양적성장을 거듭하였다.

1996년 현재 본 대학은 15만 3천여평의 교지에 4만3천여평의 시설을 갖추고 7개 단과대학 45개학과, 대학원에 석사과정 29개학과, 박사과정 17개학과를 두고 있으며, 산업경영대학원(3개학과15개 전공)과 교육대학원(15개 전공) 및 정보통신대학원(1개학과)의 3개 전문대학원을 두고 있다. 1994년도 현재 전임교원 수는 520명, 직원 350명, 재학생 수는 대학 10,231명, 대학원 석사과정 742명, 박사과정 100명이며, 현재까지 25,53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본 대학교는 진리(眞理:Veritus), 자주(自主:Suijuris), 봉사(奉仕:Servitium)의 교육이념 아래 창조적 탐구인, 자주적 지성인 그리고 유능한 직능인을 육성하는데 그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이제 울산대학교는 전국적인 명문대학으로서 학문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수월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여, 세계속의 명망 높은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2000년대를 향해 힘찬 웅비의 나래를 펴고 있다.²⁾

울산대학교는 1996년 대학 C.I.(Campus Identity)를 도입함에 따라 새로이 건축(학생회관, 공학5호관, 행정본관 등)되는 건물 내외부의 사인물은 새로이 디자인되어 설치되었으나 그밖의 시설물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대학환경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대학교의 기존 설치된 시설물은 다음과 같이 시설물, 설치장소, 사용자, 관리의 네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2) 울산대학교 요람, 울산대학교출판부, 1996, pp. 1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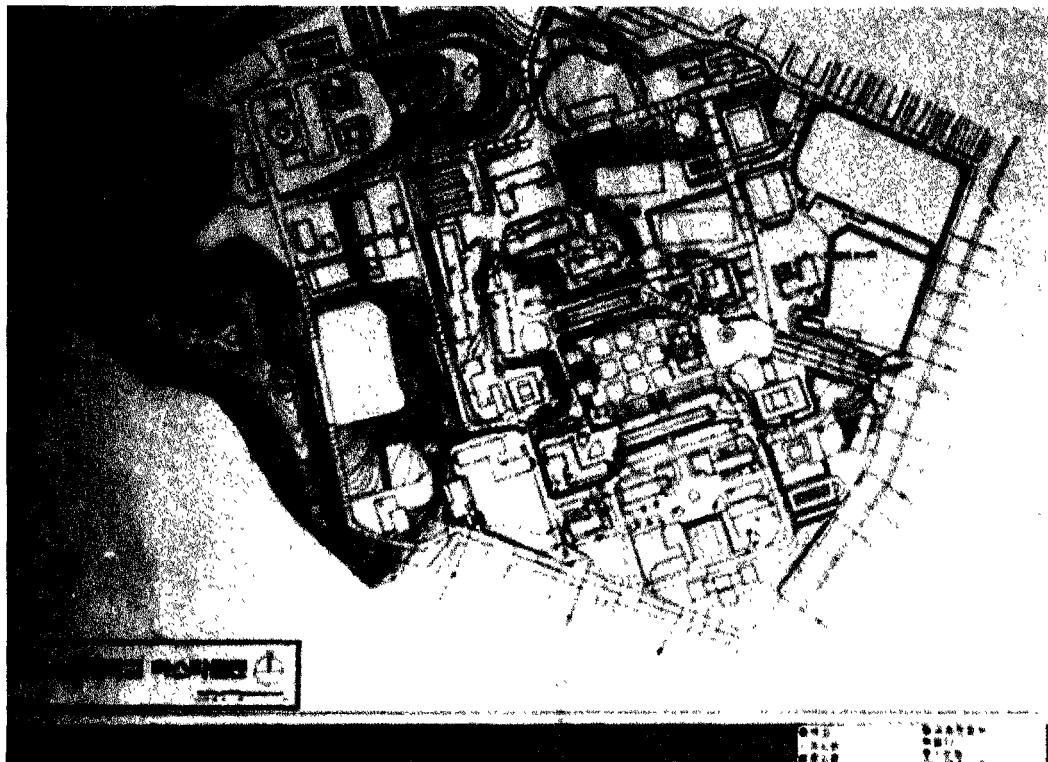


사진 1) 울산대학교 스트리트 퍼니처 현황조사

* 시설물

디자인이 잘된 스트리트 퍼니처는 대학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

대부분의 시설물(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은 기성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예산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량대비 단가를 따졌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예산에 맞추어 저가의 것을 일괄구입하거나 구입 당시의 유행품(그것도 공원, 유원지 등을 위해 디자인 된)을 구입하다 보니 디자인이나 색상 등에 통일감을 주지 못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통의 예를 들어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류는 무려 여섯가지나 된다.(사진 2)

이러한 요인은 주변에 시각공해와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들로 산재하게 되고 결국 대학 환경을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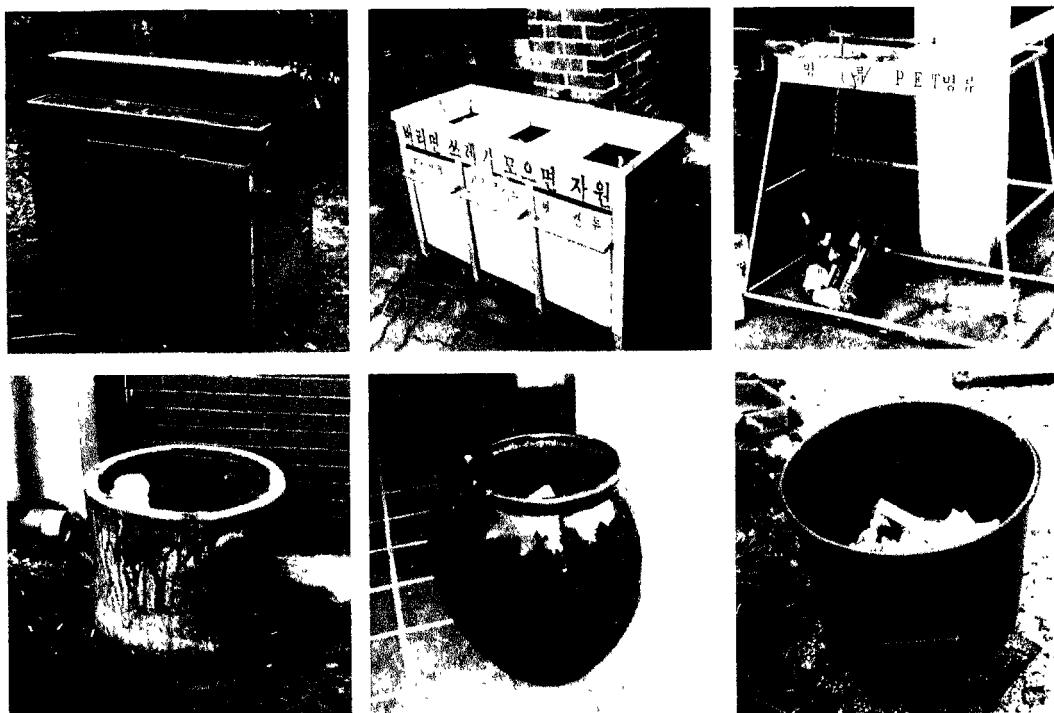


사진2) 울산대학교에서 사용 중인 쓰레기통

* 설치장소

스트리트 퍼니처의 적절한 사용은 유사한 주변 건물의 분위기를 특색있게 바꿀 수 있다. 시설물의 배치는 장기적인 대학 마스타 플랜에 의하여 건축, 조경, 디자이너에 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아래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개 시설물이란 건물의 주변적인 장식물로만 이해되고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의 동선,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필요시 찾아 볼 수 없는 각종 안내사인류, 먼거리에 위치한 공중전화와 휴지통, 보행에 불편을 주는 벤치, 가로등 없는 어두운 공간 등이 울산대학교의 현실이다.

* 사용자

우리의 스트리트 퍼니처를 내것같이!

대학의 스트리트 퍼니처는 그 사용자에 있어 일반 불특정 다수자가 사용하는 도시의 스트리트 퍼니처와는 다르다. 최고의 지성인 그것도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가 사용자인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깨끗하게 사용되리라고 생각될 시설물이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에서의 벌칙금 같은 규제가 없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규제이전에 스스로가 시설물을 아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남녀노소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일반 스트리트 퍼니처보다 훌륭하게 디자인 될 수 있는 요인이 오히려 제약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훼손, 분실때문에 철과 시멘트로 만들어 쇠사슬로 묶어만 들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문제는 디자이너의 꾸준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야에서 함께 힘써야 할 전반적인 의식개혁의 문제인 것이다.

* 관리

지속적인 관리만이 좋은 대학환경을 유지한다.

사용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사용자 의식 문제와 더불어 조직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 설문조사내용 및 분석

제 목 : 울산대학교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목 적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의 인지도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울산대학교 스트리트 퍼니처의 개발방향을 모색한다.

조사방법 : 울산대학교 구성원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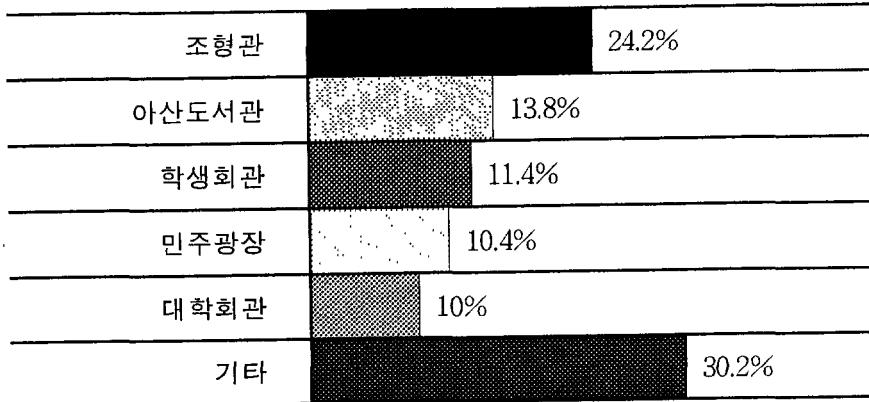
회수율	배 부	회 수	유 효
부 수	250	237	210
대비율(%)	100	94.8	84.0

성 별	남 자	여 자	계
인 원	126	84	210
대비율(%)	60.0	4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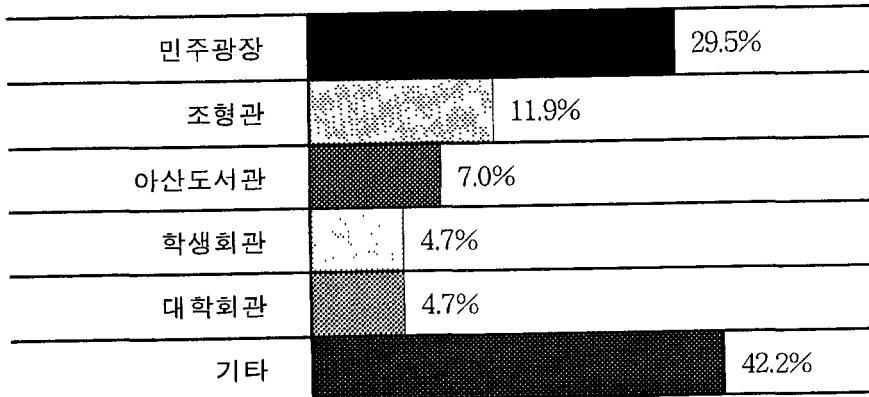
직 위	학 생	교수 및 교직원	계
인 원	192	18	210
대비율(%)	91.4	8.6	100

학 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계
인 원	38	51	49	46	8	192
대비율(%)	19.8	26.6	25.5	23.9	4.2	100

문1) 귀하께서 외부에서 휴식공간으로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곳은?(○표시 하세요)



문2) 귀하께서 외부에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곳은?(●표시 하세요)



문1)~문6)은 울산대학교 배치도위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며 표시 된 위치를 파악하니 28곳이나 되어 상위 5곳만 분석하였다.

조형관 앞(사진 3)은 교내에서 파골라가 설치된 몇 안 되는 지역에 해당되서인지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되었고, 앞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지역으로는 문1)에서 4위 이었던 민주광장이 1위로 결과가 나왔다. 민주광장은 현재 양옆으로 휴식공간이 조성되고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많은 이용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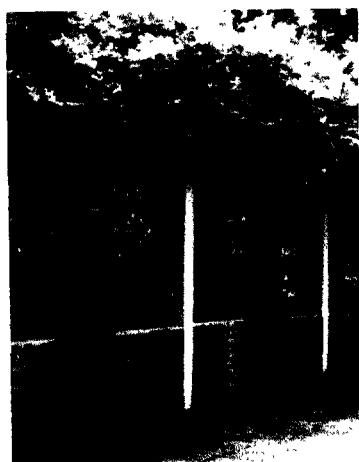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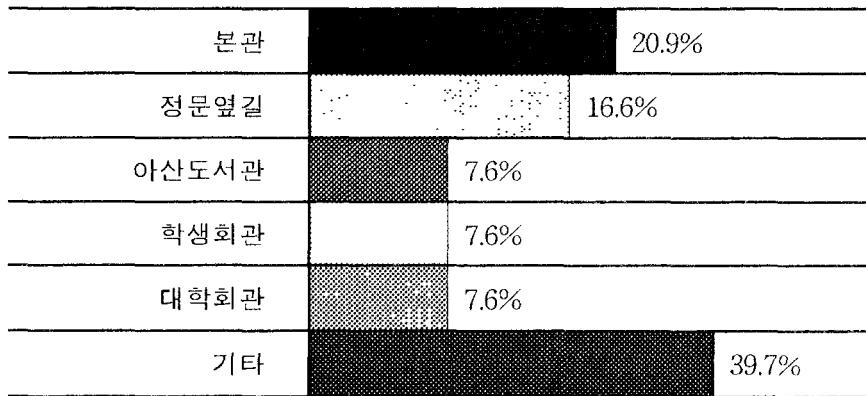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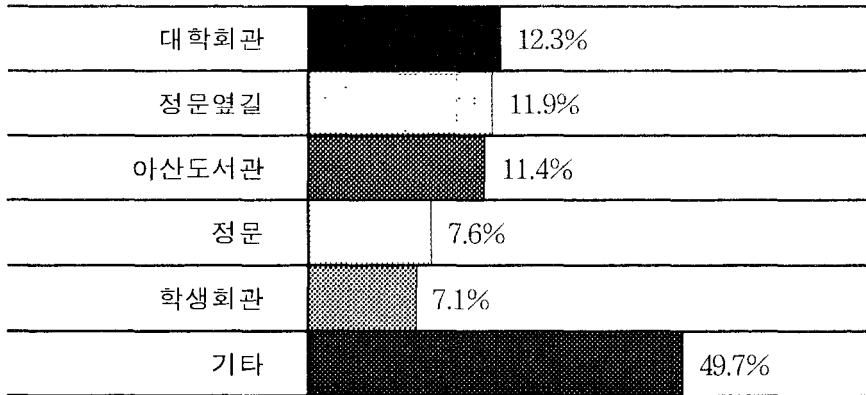


사진3) 조형대앞 파골라

문3) 귀하는 교내 게시판 중 어느곳을 주로 이용하십니까?(△표시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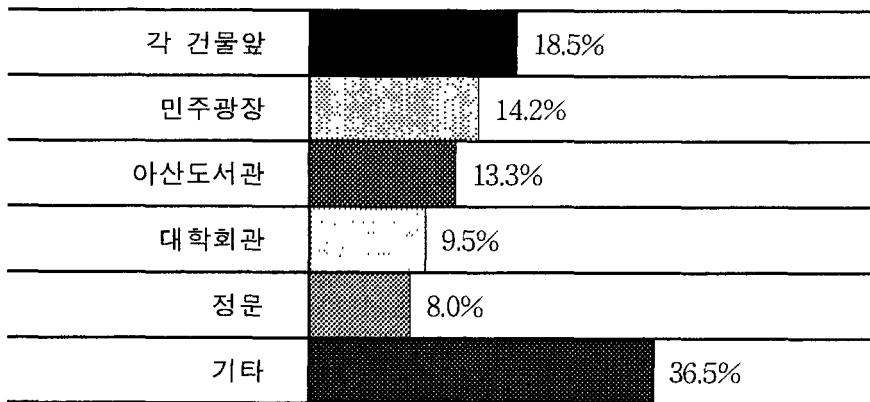
문4) 귀하께서 교내 게시판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어느곳에?(▲표시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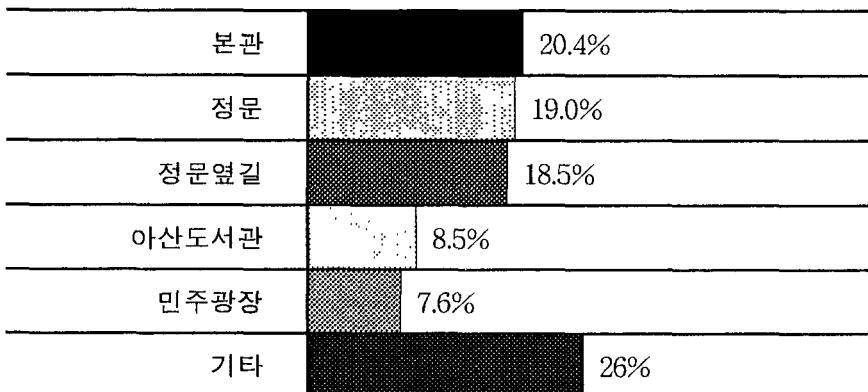
게시판은 대학의 살아 숨쉬는 표정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시설물 중에 한가지이자 가장
지저분해지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물 중에 한가지이다.

정문 옆길과 아산도서관 앞의 게시판은 주로 이용되면서도 수량의 부족을 느끼는 장소
이며 특히 대학회관(문3 : 5위, 7.6% ⇒ 문4 : 1위, 12.3%)의 추가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
타났다.

문5) 귀하께서 공중전화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어느곳에?(□표시 하세요)



문6) 귀하께서 교내종합안내판을 설치한다면 어느곳에?(■표시 하세요)



공중전화의 설치는 주된 사용자가 학생이다 보니 많은 왕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추가 설치 대상지역으로 나타났다.

종합안내판은 대학구성원보다도 외부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지만 현재 울산대학교가 계속 건물이 들어서고 그에 따라 명칭이 바뀜에 따라 울산대학교 구성원조차도 필요성을 느끼는 시설물이다. 계속적인 관리와 함께 추가 수정 설치가 필요하다.

*교내 시설물에 대한 질문입니다.(한곳에만 ○표시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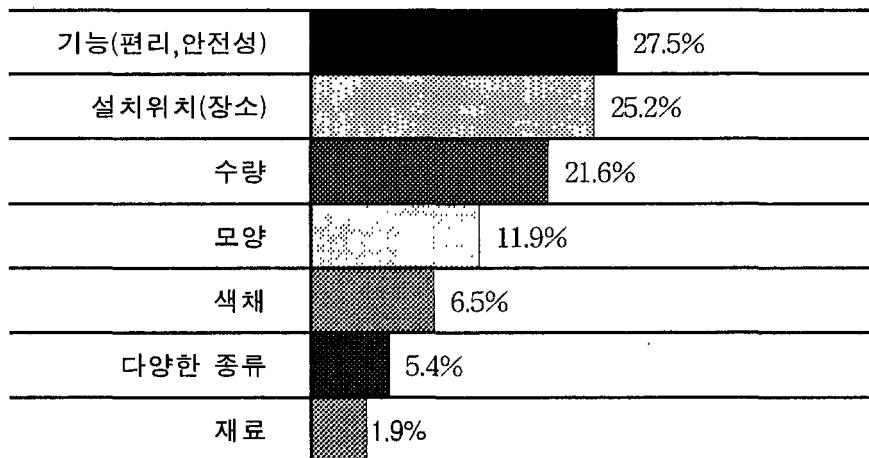
백분율(%)

		매우만족 (+2)	+1	그저그렇다 (0)	-1	매우불만족 (-2)
문7) 벤치	수량	6.1	4.2	30.9	15.2	43.3
	설치장소	1.9	8.1	43.8	12.9	33.3
	디자인(형태)	1.9	1.9	30.5	17.1	48.6
	색채	1.9	3.4	31.9	17.1	45.7
	기능(편리,안전성)	4.3	5.2	40.5	11.4	38.6
문8) 휴지통	수량	4.3	7.6	30.5	17.6	40.0
	설치장소	4.3	7.1	37.2	20.0	31.4
	디자인(형태)	3.3	7.6	32.9	20.5	35.7
	색채	1.9	5.7	39.1	19.0	34.3
	기능(편리,안전성)	1.9	9.5	41.5	17.6	29.5
문9) 계시판	수량	2.3	5.7	31.0	20.5	40.5
	설치장소	1.9	6.2	41.4	18.6	31.9
	디자인(형태)	0.5	4.8	26.2	22.8	45.7
	색채	0.5	3.8	29.6	22.8	43.3
	기능(편리,안전성)	1.9	5.7	36.7	22.8	32.9
문10) 자전거보관대	수량	3.3	7.6	28.6	18.1	42.4
	설치장소	3.3	9.5	34.3	15.7	37.2
	디자인(형태)	2.9	7.1	29.0	21.0	40.0
	색채	4.3	5.7	29.0	21.9	39.1
	기능(편리,안전성)	5.7	10.5	37.1	19.1	27.6
문11) 공중전화기	수량	0.4	3.4	11.4	12.4	72.4
	설치장소	3.4	3.4	25.7	15.2	52.3

예상대로 대부분의 시설물이 수량, 설치장소, 디자인, 색채, 기능의 여러 항목에 걸쳐 80~90%가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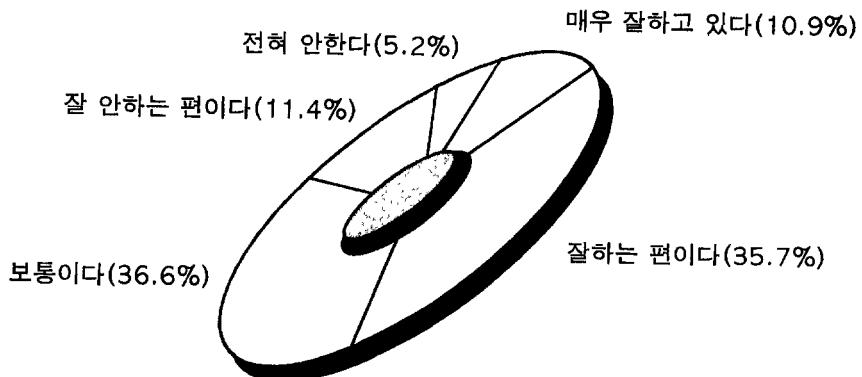
특히 공중전화는 수량, 설치에 있어 높은 평점(72.4, 52.3%)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12) 귀하께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만 표시하세요.



디자인 고려 요소중 외관에 해당되는 모양, 색채, 종류, 재료 보다는 실제 사용에 관련된 기능, 설치장소, 수량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설치물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시설물 자체도 기본적인 제 기능을 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문13) 귀하께서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편입니까?



* 최근에 설치된 그물형 분리쓰레기통과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분리쓰레기통을 비교한 것입니다.(한곳에만 ○표시 하세요/ 문14~16)

	백분율(%)			
	그물형	스테인레스스틸	둘 다 그렇다	둘 다 아니다
쓰레기를 분류하여 버리기가 편하다	44.3	18.6	18.1	19.0
외관이 미려하다	11.4	28.6	22.4	37.6
주위가 청결하다	9.5	23.8	16.2	50.5

대학구성원의 분리수거는 대체로 잘하는 편이나 쓰레기통 주변이 청결하지 않다는 지적은 대학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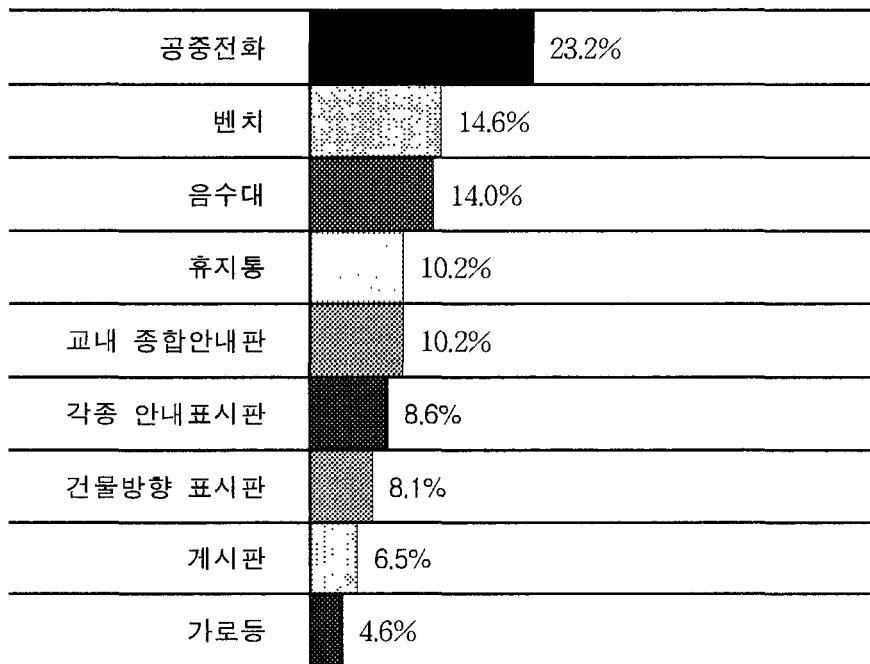
그물형 분리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분류하여 버리기는 편하나 외관이 미려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각각 46.6%, 50.5%) 그물형 분리쓰레기통은 수거시 하나하나 꺼내어 다른 재활용 봉투에 담아야 하는 불편(사진4)이 있으나 안의 내용물이 보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버리게 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새로이 디자인할 때 고려해 볼 만한 것이라 생각한다.

울산에서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게 된 이후 학교 주변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분별없이 야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있어 학교측에서는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 점이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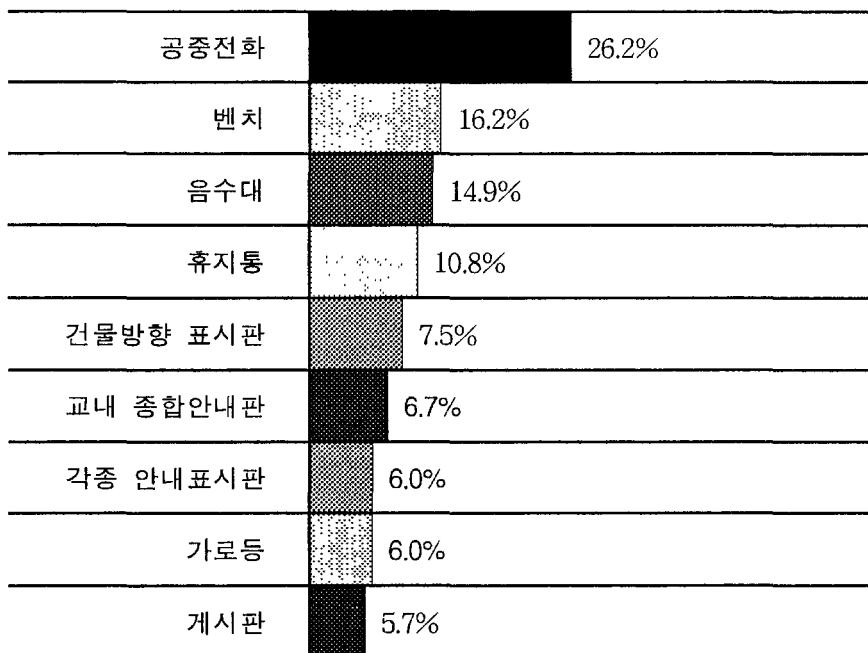


사진4) 그물형 쓰레기통

문17) 교내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물은 무엇입니까?(3가지만 표시하세요)



문18) 교내에서 가장 수량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물은 무엇입니까?
(3가지만 표시하세요)



교내의 시설물 중에 불편하고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공중전화, 벤치, 음수대 그리고 휴지통의 네가지는 순위의 변화없이 상위권(10%이상)을 차지하였다.

공중전화는 수량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지적되었으며 음수대는 양쪽에서 3위를 차지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수도물을 음수로 사용할 수 없기에 내부시설물로 다루어야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설문조사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울산대학교내의 시설물 대부분이 수량, 설치장소, 디자인(형태), 색채 그리고 기능(편리, 안전성) 등 모든면에서 만족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사용자 대부분이 질적문제인 디자인보다 양적문제인 수량문제의 해결을 급선무라 생각하고 있었다.

2.3 디자인 방향 및 고려사항

대학의 스트리트 퍼니처는 일반의 것과는 디자인시 고려하여야 할 요인이 다르다.

첫째, 단가문제이다.

대량생산이 가능한 일반 스트리트 퍼니처에 비교하여 수량이 적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장점화하여 일반 스트리트 퍼니처가 갖고 있는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형태를 탈피하여 캠퍼스내의 각 공간을 특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최소의 재료와 합리적인 제작공정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용자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남녀노소의 불특정 다수자가 사용하는 일반 스트리트 퍼니처보다 오히려 훼손, 문실의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에서의 벌칙금 같은 규제 이전에 미래를 이끌어 갈 예비사회인으로서, 젊은 지성인답게 대학구성원 모두가 노력하여 풀어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디자인시 튼튼한 재료와 구조의 선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울산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스트리트 퍼니처를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디자인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다루기로 하겠다.

휴게그룹	벤치, 셀터
위생그룹	휴지통, 재떨이
정보그룹	각종 사인류, 게시판, 공중전화 부스

2.3.1 휴게그룹

(1) 벤치

벤치는 앉는 도구로서의 딱딱한 기능적 풀이 보다는 휴게의 단어를 연상하며 유연하게 디자인되어야 할 시설물이다. 커뮤니티를 형성시켜주는 중간 매개물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인간이 가장 손쉽게 접하여 많이 사용하는 시설물인 만큼 인간공학적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벤치는 독립된 단좌형과 여러명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연좌형으로 사용하는 사람수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는데 대학에서는 경제성과 도난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연좌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좌형은 대부분 2~4인용이 있으나 2인용은 심리적으로 단좌로 이용될 경우가 많고 4인용은 두개의 그룹으로 대화가 나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친구사이라면 4인용으로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도 있는 3인용이 적당하다. 다만 연좌형의 경우 한 사람이 누워 벤치를 독점하는 단점도 있다.

또한 등받이의 유무에 따라 등받이가 없는 스투울형과 등받이가 있는 일반형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가지를 모두 개발하여 각각 장소에 따라 사용목적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가) 등받이가 없는 스투울형

비교적 단시간의 휴식에 사용된다. 구조가 간단하고 방향성이 없기에 배치가 자유로운 장점이 있으며 주로 사람들의 유동이 밀집된 장소나 사용할 사람이 너무 많아 독점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유도할 경우에 사용된다. 또한 차량이 통행하는 가로변의 공간이나 차막이의 기능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보행자가 많은 공간에서 간단하게 걸터앉을 수 있도록 좌면을 일반적인 것보다 약간 높게 한 벤치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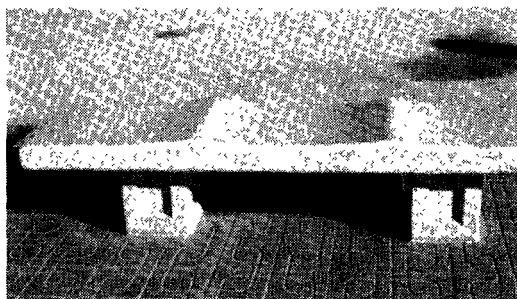


사진5) 스투울형



사진6) 일반형

나) 등받이가 있는 일반형

비교적 장시간의 휴식에 사용된다. 등받이 뿐만 아니라 팔걸이도 있는 유럽형의 상징적인 형태를 갖는 벤치도 있다.

명상이나 독서 등의 목적으로 한적하고 경관이 좋은 휴식공간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관상 스투울형 보다는 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며, 형태상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배열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치수

연좌용은 대개 좌면의 크기가 3인 기준으로 180cm 내외의 폭과 40~45cm의 깊이이며, 등받이가 있는 경우 보통 35cm의 크기에 휴식의 유형에 따라 5도 내외의 기울기를 준다.

걸터앉는 스투울형의 경우 지면에서부터의 좌면의 높이는 60cm내외가 될 정도로 높지만 대개의 경우 38~40cm의 높이를 사용한다.

재료

벤치는 목재, 석재, 콘크리트, 플라스틱, 금속 그리고 드물게는 도자기 등으로 다양하게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목재, 석재는 재료자체의 단가가 비싼 단점이 있고 플라스틱과 도자기는 금형을 이용하기에 생산량이 많아야 단가를 내릴 수 있다.

경제성을 생각할 때 목재(좌면, 등받이)와 콘크리트(다리)의 혼합사용이나 금속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금속은 열전도율이 좋은 이유로 좌면으로의 사용을 기피하였으나 최근에는 펀칭메탈, 메슈(그물)를 사용하여 다양하게 디자인된 벤치가 등장하고 있다.(사진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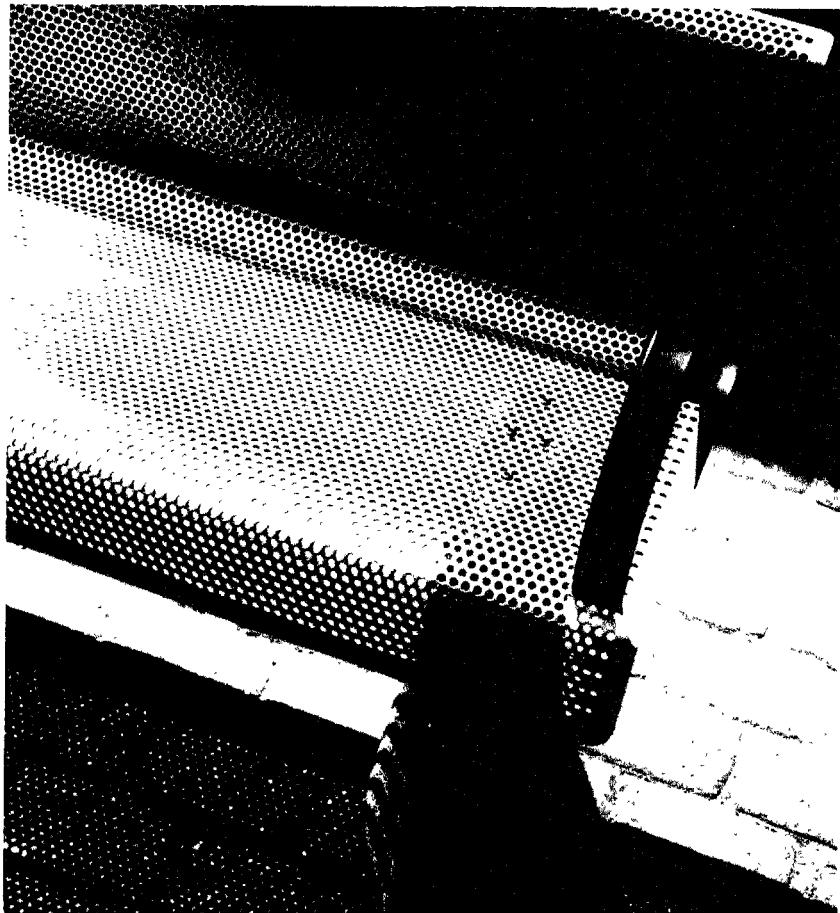


사진7)

(2) 셀터

셀터는 비, 햇빛, 눈 그리고 비바람 또는 번개를 피하는 장소, 피난소 그리고 은신처 등을 말한다. 각각의 기능은 설치장소의 기후조건이나 목적에 따라 선택될 것이며 규모에 따라 우산형 정도의 작은것 부터 아케이드나 쇼핑몰 등에 사용하는 큰것까지 다양하다.

대학에서는 택시정류장(사진8)과 같은 중간크기(2~8m)의 휴게용 셀터를 주로 사용하며, 특히 울산대학교의 경우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햇빛과 약간의 비를 막는 정도의 기능을 갖춘 셀터가 적당할 것이다. 셀터의 일종으로 현재 조형관 앞에 설치된 지붕형태에 덩굴(담쟁이나 장미 등) 등 식물을 자라게 한 파골라도 건물과 건물사이에 자연을 부여하는 의미로서, 또 캠퍼스의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셀터라 할 수 있다.



사진8)

셀터는 스트리트 퍼니처 중에 대형에 속하며 주위의 경관을 좌우하기 때문에 색깔, 재료 그리고 형태에 유의함은 물론이고 설치장소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비교적 장시간의 휴식을 취하게 되므로 휴먼스케일, 사용자의 동선과 유동량, 계절에 따른 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3.2 위생그룹

(1) 휴지통

휴지통은 위생계 스트리트 퍼니처에 속하며 특히 보수, 관리 수거시스템 계획이 중요하다. 또한 직접 간접으로 이용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도구이기에 이용자와 관리자와의 상호의 노력에 의한 문명수준의 척도가 된다.

휴지통은 외관의 형태에 따라 직접 바닥에 놓는 바닥거치형, 본체가 기둥에 의해 지탱되는 주두형, 기둥이나 벽에 부착되는 브라켓형(사진 9)으로 나뉘며 투입구의 위치로써 상부개구와 측면 개구의 2가지, 투입구 뚜껑의 유무로써 개방형과 개폐형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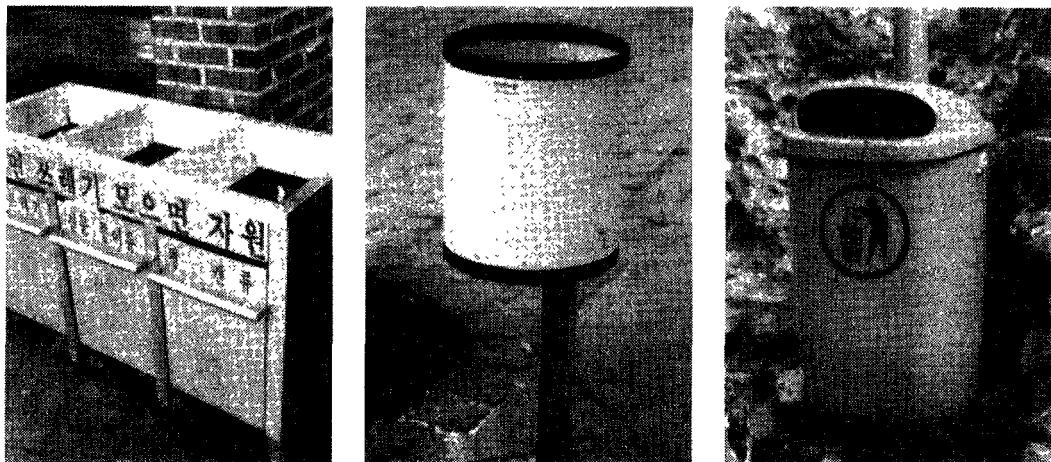


사진 9) 외관에 의한 분류

상기의 분류는 일반적인 것이고 최근에는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 종류에 의해 투입구가 여러개인 종합형이 많이 사용된다.

울산대학교에서 현재 사용중인 그물형 쓰레기통은(사진 4참조) 사용자가 쓰레기를 버릴 때 안밖에서 내용물이 보이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용이하고 특히 음료수의 경우 내용물을 다 마신후 버리기에 오히려 관리 측면에서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어 시설과에서는 선호하는 편이다. 한편으로는 가장 외관이 좋지 않은 쓰레기통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고려한다면 현 실정에 잘맞는 형태의 쓰레기통이 디자인되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면 사진 10)과 같이 타공된 스테인레스 스틸과 같은 편광메탈이나 메슈(그물형 스틸)를 재료로 사용하여 디자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투입구의 위치는 보통 형태에 따라 60~90cm 정도에서 설계되며 수거방법의 용이함도 고려하여 디자인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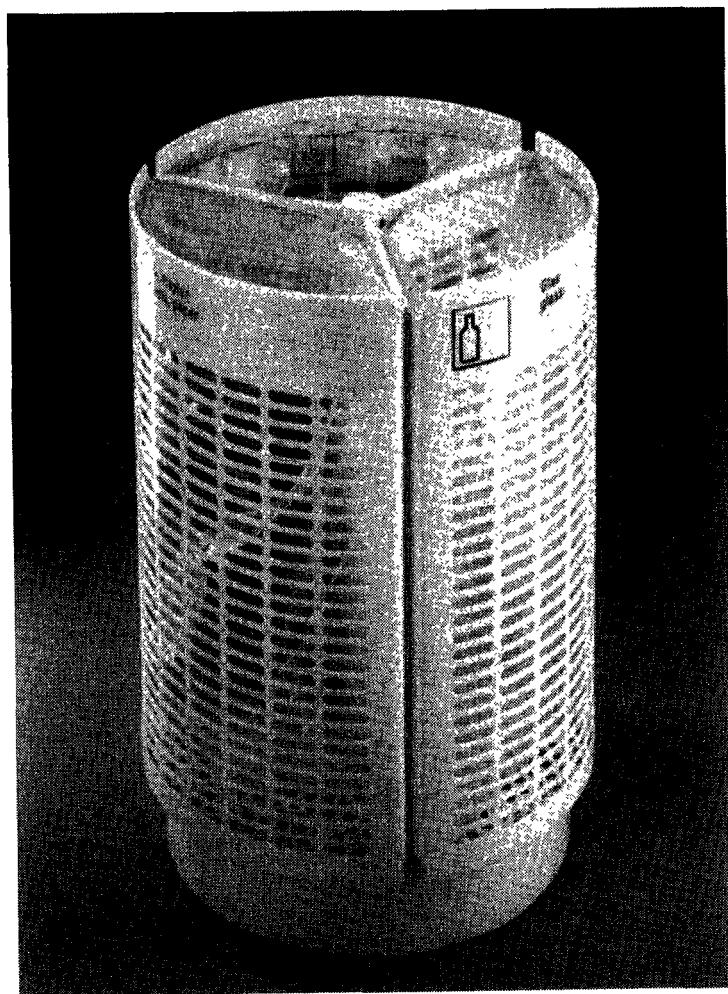


사진 10)

(2) 재떨이

재떨이의 기본형은 휴지통과 마찬가지로 바닥거치형, 주두형 그리고 브라켓형의 3가지로 분류하며 서서 이용할 수 있도록 60cm 전후의 높이에서 설계된다.

벤치, 옥외탁자, 휴지통 등에 복합하여 디자인될 수가 있는데 주로 쓰레기통의 윗부분에 같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70~80cm정도에 위치한다. 복합형의 경우 화재에 대비하여 쓰레기통과 분리하며 내부에 소량의 물이나 모래를 채우거나 투입구에 격자모양의 판을 두어 디자인 한다.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의식에 의해 확실하게 담배불을 끄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이상의 벤치, 셀터, 쓰레기통 그리고 재떨이는 셀터를 중심으로 종합하여 디자인 될 수도 있다.

2.3.3 정보그룹

(1) 각종 사인류

사인(sign)은 일반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리키는 표시이며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다.

주어진 환경의 구조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질서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둘째로는 형태, 색채, 배치 그리고 최근에는 장치적인 것까지 구사하여 단순명쾌하고 신속하게 행동의 능률을 높여 주는 역할, 마지막으로 지역 또는 사인의 성격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사인을 만들어 냄으로써 환경 전체의 질을 높이고 이미지를 창출하는 역할 등의 세가지 목적이 있다.

사인은 안내사인, 유도사인, 식별사인 그리고 규제사인의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울산대학교는 현재 대학 C.I.(Campus Identity)에 의해 실내, 옥외의 사인류와 다음에 언급할 게시판을 별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설치위치에 있어 보행자가 아닌 차량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있어 그 문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스트리트 사인의 배치는 정보흐름의 구조화에 의해 설치위치가 결정된다. 즉,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원활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주변환경의 시·공간감을 느끼고 생활환경의 리듬감을 줄 수 있고 표현으로서 독자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각개의 단위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여러개가 연관되어 보다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시스템의 개념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디자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 11) 울산대학교 C.I.에 의한 사인물

(2) 게시판

게시판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대학의 살아 숨쉬는 표정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시설물 중에 한가지이자 가장 지저분 해지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물 중에 한가지이다.

게시판은 정보가 무질서하게 범람하는 것을 막기위해 허용된 공간에 집중게시를 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정보입수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치수는 게시될 정보의 치수에 의해 좌우되며 벽면부착형과 바닥거치형으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외국의 경우 광고탑을 이용하여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행도로의 폭이 좁은 우리나라로서는 도시의 스트리트 퍼니처보다는 대학의 스트리트 퍼니처로서 활용해 봄직하다. 특히 원통형의 경우 다소 상이한 광고물 규격에도 대응하기 쉽고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다목적 게시에 적합하다. 또한 보행자의 동선을 의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온도계, 시계, 조명 등을 곁들여 새롭고 매력적인 공간을 연출할 수도 있다.

(3) 공중전화 부스

공중전화는 정보화사회에 있어 기본적인 통신시스템을 이루는 도구이자 최근에는 효율 기의 대중화와 더불어 효율기 전용의 착신용 공중전화기가 등장함에 따라 학생들에 있어서 필수적인 욕의 시설물로 각광받고 있다.

부스(booth)형과 입식(stand)의 두가지의 형태로 대별되며 일반적으로 나무, 알루미늄이나 스틸 프레임에 유리를 사면에 끼워 주위의 소음을 차단하거나 비,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최근에는 프레임 없이 강화유리나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치수에 있어 휴먼스케일이 가장 커다란 요인이 된다.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보통 부스형의 경우 2m내외의 높이에 90x90cm내외의 면적을 최소한의 치수로 하여 디자인 한다.

입식형의 경우 대부분이 치마가 있는 외부에 설치하나 비가 많이 오지않는 지역의 경우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사출물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다.

울산대학교의 경우 현재 대부분이 기성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과 다른 형태의 스틸 프레임 구조나 편치메탈, 메슈, 나무 등의 다른 재료를 사용하면 충분히 새로운 이미지의 공중전화 부스가 디자인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휴게그룹, 위생그룹, 정보그룹의 세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디자인 프로세스 중 아이디어 스케치 전 단계까지의 디자인 방향 및 고려사항을 알아 보았다.

3. 結 論

대학환경을 구성하는 개념이 양적문제에서 질적인 문제로 개념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스트리트 퍼니처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스트리트 퍼니처는 대학환경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이면서 그것이 대학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울산대학교는 시설면에 있어 그동안 양적인 물질적 성장에 매진해 왔다고 하여도 과언

이 아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대학구성원의 정서적인 문제인 질적성장을 동시에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의 스트리트 퍼니처는 대학환경에 있어 관심의 주요 대상이 되지 못하고 주변적인 장식물로만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학내의 스트리트 퍼니처는 각각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천덕꾸러기인 마냥 대학의 경관을 해치는 요소로 남게 되었다.

대학환경은 전적으로 스트리트 퍼니처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그 나름대로의 디자인 효과가 공간속으로 연속될 때, 그리고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학구성원과 접하면서 체험하여 얻어진 경험들이 모여 구성원의 의식이 바뀌게 되고 대학의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학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대학환경은 건축, 조경, 디자인 등의 여러분야가 공유한 총체적인 마스타 플랜에 의해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어울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의 스트리트 퍼니처는 양에 있어 대량생산이 불가능함으로 일정 지역내의 대학과 대학간의 공동연구에 의해 대량생산을 모색하여 보는 것도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학교의 예산이 허락하여 새로이 스트리트 퍼니처가 제작될 경우, 디자인 작업 과정의 아이디어 스케치 전 단계까지의 자료조사 및 분석, 디자인 방향제시 그리고 고려인자 등을 제안한 것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의한 판단과 충분치 못한 자료제시로 그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혹, 후학이 대학내의 스트리트 퍼니처를 디자인 할 경우 본 논문이 기초자료로써 미약하게나마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좀 더 깊이있고 충실한 연구는 다음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Sign Communication Publishing Committee, 'SIGN COMMUNICATION ', Kashiwashobo, 1989.
2. Yukio Ota and Osami Sakano, 'SIGN COMMUNICATION 2 ', Kashiwa Bijutsu, 1993.
3. Naoki Mukoda, 'Street Furniture', Bijutsu Shuppan-sha, 1990.
4. 전동훈 역, '환경건축 도시디자인', 기문당, 1989.
5. 손혜민 옮김, 'NEW DECOMAS C.I., B.I.를 통한 신경영전략', NEW DECOMAS 위원회 편저, 디자인 하우스, 1994.
6. 일본능률협회, 'C.I전략실무', 올기업문화연구원, 1993.
7. 박노석, 백운호, '울산대학교 C.I.에 관한 연구', 조형논총 제1권 3호, 울산대학교, 1996.
8. '산업디자인 83', 1985.
9. 'COSMA 84', 1991.